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에 관한 연구

조 광 국*

1. 서론

1910년대는 주지하다시피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이 번창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전시대의 고전소설이 구활자본의 형태로 출현하였으며 신작 구소설도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청년회심곡」은¹⁾ 적어도 8회 가량 간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용상사곡」, 「채봉감별곡」과 같이 신작 구소설로서 당시 적지 않은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²⁾

그렇다면 「청년회심곡」은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을 끌만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동안 이 작품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한산한 편이었다. 가사의 소설화 과정에 포함되어 논의되거나,³⁾ 염정소설의 범주,⁴⁾ 또는 「왕

* 홍익대 강사

1) 「青年梅心曲」, 신구서림, 1914(『활자본고전소설전집』 10, 아세아문화사, 1976).

2) 이주영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회심곡」은 1판 간행(1914, 신구서림, 99면), 4판 간행(1918, 신구서림, 84면), 5판 간행(1921, 신구서림, 84면), 5판 간행(1925, 덕흥서림, 70면), 1판 간행(1926, 경성서적조합, 84면), 1판 간행(세창서관, 64면) 등으로 간행되었다.(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229면) 한편 조동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채봉감별곡」은 15회 이상 간행되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3판, 지식산업사, 1994, 349면).

3) 김기동, 「가사의 소설화 사론」, 『동국대 논문집』 3·4 합집, 1967.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77.12.

박정준, 「가사가 삽입된 소설의 연구-부용의 상사곡, 청년회심곡, 채봉감별곡의 비교와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4) 정종대, 『염정소설구조연구』, 계명문화사, 1990.

경릉전」계 애정소설 범주에 놓여지는 등⁵⁾ 여러 작품들과 함께 논의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청년회심곡」은 고전소설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의 하나이며 그리고 1910년대의 소설 수용 양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소설이다.

이에 본고는 「청년회심곡」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에 대한 연구로 그 발판을 삼고자 한다. 이 작품의 창작방법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의 창작방법에 대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출현하였던 신작 구활자본 소설의 창작방법의 한 단면을 보여줄 것이다.

2.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

「청년회심곡」은 조선후기의 기녀 관련의 세태를 바탕으로 하여 기녀의 수절·애정 관련 기녀담, 재물추구 관련 기녀담, 그리고 「구운몽」·「옥루몽」 및 17세기 소설 「왕경릉전」, 그리고 정조 때 유배가사 「만언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소재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화 및 시대의식 구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 수용 양상을 통하여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기녀담 수용

(가) 기녀의 수절·애정 관련 기녀담 수용

기녀는 법률적으로 남편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관료에게 수청드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녀가 지조를 지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간혹 기녀의 수절 행위가 없었던

5) 박일용, 「왕경릉전계 애정소설의 흐름과 사회적 성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것은 아니나 그러한 경우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기녀담으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조문명이야기」는, 풍류 조문명이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오는 길에 안주 백상루 잔치에서 童妓에게 장난삼아 애정의 표시로 부채를 선물하였는데 그 기생이 수절하였고 공이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이다.⁶⁾ 「가련이야기」는 7세의 기생 가련이 어사 이광덕(李匡德:1690-1748)을 위하여 수절하였다가 이공이 병들어 죽자 이공의 제사를 지낸 후 자결하여 길가에 묻혔는데 훗날 박문수가 안찰하던 중 가련의 무덤을 지나다가 그녀를 기렸다는 이야기이다.⁷⁾ 「유명수이야기」는 포의지사 유명수가 일찍 세상을 떴는데 그가 관계를 맺었던 기녀와 처녀가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이다.⁸⁾ 「단천비·함홍기이야기」는 17세의 동갑내기인 남명과 정분을 나누었던 단천 관비와, 어린 황위와 정분을 맺고 딸 자식을 낳았던 함홍기가 모두 情人을 향한 애정을 간직하며 평생 수절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상의 기녀담은 서술의 초점이 양반에 놓여 있으며 양반이 기녀의 애정과 수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인물 제시 방법이나 사건의 정황에 있어서 기녀와 양반이 대등하게 설정된 경우가 있다. 「매화이야기」가 그에 해당한다.⁹⁾

- ① 매화는 곡산 기생인데 한 늙은 재상이 순력하다가 보고 데려다 총애하였다.
- ② 새로 부임한 곡산원이 妓母에게 뇌물을 주고 매화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6) 「豊陵趙相國文命」(중앙도서관본 『금계필담』).

7) 「托終身女俠捐生」(규장각본 『청구야담』 권지구). 이 이야기는 「威關對唱娥留期」로 전하는데, 3단락에서 결인 차림으로 변장한 여사가 몸을 뒤지며 이를 잡는 모습이 달라서 소문을 내었다고 한 부분이 다를 뿐이고, 그밖의 내용은 같다(「威關對唱娥留期」(가람본 『동야취집』 권육)).

8) 「兪斯文命修」, 『동패락송』(『한국야담자료집성』 1, 계명문화사).

9) 「營妓伴狂隨俗倖」(규장각본 『청구야담』 권지십사). 이 이야기는 「매화자곡산기야」, 「소기양광부방약」, 「여중예양야」 등으로도 전하는데, 「소기양광부방약」에서는 늙은 재상의 이름이 李宅鎭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만이 다를 뿐, 모두 내용이 같다(「梅花者谷山妓也」(규장각본 『계서야담』 권1), 「梅花者谷山妓也」(연세대 4책본 『기문총화』), 「少妓伴狂赴芳約」(가람본 『동야취집』 권16), 「女中豫讓也」(서울대 가람문고본 『청야담수』)).

- ③ 기생의 어머니가 매화를 불러오니 매화도 30여 세의 곡산원을 연모하게 되었다.
- ④ 한 달 기한이 다하여 매화가 순상에게 돌아간 후 얼마 있다가 광증을 내었다.
- ⑤ 순상이 제 집으로 돌려보내니 곡산원에게로 갔다.
- ⑥ 곡산원이 한 언관을 부추겨서 순상을 논박해 파직시킨 후 매화를 첩으로 삼았다.
- ⑦ 병신년 옥사에 곡산원이 연좌되어 죽음을 당하니, 매화가 따라 자결하였다.
- ⑧ 처음 순사를 속이고 후에는 곡산원에게는 절개를 지키니 예양(豫讓)이다.

위 이야기에는 남주인공 곡산원이 기모를 내세워 기녀 매화를 만나는 것, 곡산원과 기녀의 애정이 성취되는 것, 매화가 순상의 광증을 내며 수청을 피한 것, 남주인공이 순상을 탄핵한 것, 애정을 위협하는 방해 세력이 제거됨으로써 남주 주인공의 애정이 성취된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청년회심곡」에서도 확인된다. 김진성이 술값을 후히 주면서 주모를 내세워 농월을 만났으며, 남주 주인공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였고, 농월이 병을 핑계대며 송도 유수의 수청 요구를 피하였으며, 진성이 송도 유수를 탄핵하였고, 마침내 송도 유수가 제거됨으로써 진성과 농월이 애정결합을 이루었다. 「매화이야기」는 비교적 많은 이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널리 전해졌던 이야기로 보인다. 이 이야기는 양반간의 기녀쟁탈이라는 기녀 풍속을 소재로 하여 기녀의 주도적인 남성 선택이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청년회심곡」의 기녀 농월의 성격화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나) 재물추구 관련 기녀담 수용

기녀는 해당 관청에서 음악교육, 수청 등 妓役을 감당하면서도 나라나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는 없었다. 기녀는 行下나 冥幣를 받거나 양반의 연회에 동원되거나 또는 다른 남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지만¹⁰⁾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이러한 일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기녀풍속을 배경으로 하여 재물을 탐내는 기녀들의 이야기는 기녀담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모란이야기」는 평양기 모란이 情夫 비단

10) 조광국, 「월하선전 연구」,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한국고전소설사의 재조명』, 집문당, 1998.

장사와 짜고 갓 상경한 시골 知印 李生을 유혹하여 전 재산을 털고 이생을 거지꼴로 만들어 비웃음을 사게 하였다¹¹⁾ 「한생이야기」는 기생이 죽음을 걸고 한생과의 사랑을 맹세하였지만 정작 한생이 빈털털이가 되었을 때에는 기생이 사랑하였던 남성들, 예컨대 장성 향리 이청, 광주 갑사 임만손, 고부 군수 신고령, 校生 박명춘과 영남 행객 오필의 이름을 댄 후 마지막에 한생을 꺾었다는 이야기다.¹²⁾ 「두선비이야기」는 기생 농선이 선비 양생과 장사꾼 사이에 번갈아 오가면서 재물을 뜯어냈는데, 양생과 장사꾼이 서로 만나 우는 사연을 말하던 중 그 대상이 농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¹³⁾ 「민애이야기」는 벼슬아치의 사랑을 받던 기녀 민애가 재물을 탐내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다는 이야기이다.¹⁴⁾ 이들 기녀담은 겉으로는 애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리 추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기녀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러한 기녀에게 속은 남성의 어리석음을 그려낸다.

한편 장사꾼이 재물을 탐내는 기녀에게 미혹되어 장사밑천을 다 날리고, 기녀에게 푸대접을 받다가 마치 못해 돌아와야만 상황에 처하여, 장사치가 기녀에게 청하여 이별의 정표로 하찮은 물건을 얻어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값비싼 금이어서 오히려 거부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기녀담이 있다. 「염생이야기」, 「허생이야기」, 「화로이야기」, 「생금이야기」, 「돌이야기」, 「울금금이야기」 등이 그에 속한다.¹⁵⁾ 이들 기녀담은 이본에 따라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재물을 탐내는 기녀가 정작 값나가는 재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더 값나가는 물건을 내주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기녀의 실리추구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녀담은 공통적으로 실리의식이 있는 기녀에 의해 풍

11) 「牧丹奪財」, 『촌담해이』(민속학연구소 편, 『고금소총』, 203-204면, 민속원, 1958).

12) 「韓生秉筆」, 『어면순』(민속학연구소 편, 『고금소총』, 90-92면, 민속원, 1958).

13) 「南原有梁生者」(만종재본 어우야담).

14) 「感妓冊室遂知印」(규장각본 『청구야담』 권지십일).

15) 「楊洲에 一廉姓者」, 『과수록』(민속학연구소 편, 『고금소총』, 339-341면, 민속원, 1958), 「許生者方外人也」(규장각본 『계서야담』), 「識寶氣借樓取爐」(가람본 『동야회집』 권사), 「獲生金父子同宮」(규장각본 『청구야담』 권십팔), 「輸一石父子叙倫」(가람본 『동야회집』 권칠), 「俗譚有儿孔金八字」(장서각본 『어우야담』).

류의식·향락의식이 있는 양반(또는 장사치)이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더욱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것은 「청년회심곡」에서 실리의식을 지닌 기녀 경패가 풍류·향락의식을 지닌 김진성을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것으로 수용된다.

2.2. 소설 「구운몽」·「옥루몽」 및 「왕경룡전」 수용

(가) 「구운몽」·「옥루몽」 교차 수용

「청년회심곡」은 부분적으로 「구운몽」과 「옥루몽」의 대목을 교차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회심곡」의 작자가 「구운몽」과 「옥루몽」의 전체 줄거리나 세세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하여 기녀 농월과 경패의 성격화를 피하고 있다.

김진성이 기생 농월을 만나 서로 악기를 연주하며 낙화유수곡¹⁶⁾, 「백설조」, 「출새곡」, 「수선조」, 「옥수후정화」, 「광릉산」, 「봉구황」 등 일곱 곡을 타면서 그 곡조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 「낙화유수곡」과 「백설조」 두 곡 부분은 「옥루몽」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나머지 다섯 곡은 「구운몽」의 내용을 수용하였다.¹⁶⁾

먼저 「옥루몽」을 수용한 「낙화유수곡」과 「백설조」 대목을 보자. 이 대목은 「구운몽」을 수용한 대목에 비해서 내용과 자구가 거의 일치한다.

거문고를 무릅 우에 언고 옥수로 주현을 골나 일곡을 주하니 진성이 혼연 소
 왈 한가하도다 이 곡조여 류슈 묘연하고 락해 표탕하야 유유한 흥금과 망망한
 생각이 새간 시비를 이겼스니 이는 날은바 락화류수곡이라 수법의 단아함과 음
 도의 담탕함이 근일에 처음 듣는 배로다 월낭이 진성의 지음함을 알고 심내에
 흥복함을 마지 아니하고 다시 물려를 변하야 한곡도를 타니 그 소래 감개 격렬
 하며 우량 초창하거날 진성이 격결 차탄 왈 유심재라 차곡이여 백설이 분분하야
 텃디에 가득하니 양춘 세계를 어나 때에 맞나리오 이는 영문백설되라 참고한 곡
 도를 화답할 재 적을지라 엇지 불우지탄이 업스리오 월낭이 다시 정성을 도도고

16) 「옥루몽」에서는 봉명곡, 낙화유수곡, 백설조, 수양제의 제유곡, 한태조의 비창가, 당나라 이장길의 금동선인사한가, 주목왕의 황죽가, 충천곡, 등 여덟 곡을 연주한다(규장각 소장본 「옥루몽」 권지팔).

줄을 끝나 또 일곡을 알외니(「청년회심곡」)¹⁷⁾

거문고를 달회여 옥수로 줄을 끝나 한 곡조를 타미 천지 혼연이 우스샤 월
한가호도다 이 곡조여. 흐르는 물이 묘연하고 썩어진 꽃치 표탕하여 유유히 흥
금과 망망한 심각이 세간 비시를 이저시니 이는 이른바 낙화유슈곡이라 슈법의
단아함과 음조의 담담함이 근일 처음 듣는 비라 선님이 즉시 늘너를 변하여 다
시 한 곡조를 타니 그 소리 강기 결널하여 우량 초창하거늘 천지 격절 차탄 월
유심지라 츄곡이여 빅설이 분분하여 천지의 가득하니 양춘세계를 어느 썩 만나
리오 이는 영춘지의 빅설조라 창고한 곡조를 화답할 지 적을지니 엇지 불우지탄
이 업스리오 선님이 다시 늘너를 세번 변하여 정성을 낮초고 신성을 도두어 한
곡조를 알외미(「옥루몽」)¹⁸⁾

「옥루몽」에서의 악곡 연주 부분은 기녀 벽성선이 황제의 그릇된 음악관과
풍류관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벽성선의 행위는 양
창곡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¹⁹⁾ 그러나 「청년회심곡」에서
는 김진성과 기녀 농월의 애정을 성취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년회심곡」에서 「구운몽」을 수용한 부분 다섯 곳 중에서 ‘수선조’
를 연주한 대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회심곡」

미재라 차곡이여 청산은 아아하고 류수는 양하야 지기 상봉함에 일창일화하
니 백아의 수산되 아니나 이 날온바 종자귀를 임의 맛나니 류수를 알외음이 무
엇이붓그러리오 함이니 낭은 천백세 후의 지음이니 백아의 저령이 알음이 있스
면 종자귀의 죽음을 반다시 슬허하지 아니하리로다²⁰⁾

「구운몽」

아름답다 이 곡도여 늙흔 궤히 아아하고 흐르는 물이 양양하여 신선의 종적
이 진세에 썩여나시니 이 아니 빅아의 슈선되니잇가 빅아의 녀시 아름이 이시면
종즈귀 죽은 줄을 한티 아널소이다²¹⁾

17) 「청년회심곡」, 『활자본고전소설전집』 10, 아세아문화사, 1976, 397-398면.

18) 규장각 소장본 「옥루몽」 권지팔.

19) 조광국, 「옥루몽에 나타난 王道·霸道 並用的 정치이념 구현 양상」, 『고전문학연구』 제15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6.

20) 「청년회심곡」, 전집, 399면.

두 작품의 전개 내용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을 들자면 「청년회심곡」에서는 농월이 곡조를 연주하고 그 곡조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보이는 자가 김진성으로 되어 있는데, 「구운몽」에서는 양소유가 여관으로 변장하고 권문세가 정사도의 외동딸 정경패 앞에서 곡조를 연주하고 정경패가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녀의 역할이 바뀌어 있을 뿐이다.

또한 「청년회심곡」에서 김진성이 ‘봉구황’을 연주하여 농월을 희롱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상황이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권문세가 외동딸 정경패를 만나는 희롱하는 대목과 흡사하다. 양소유가 정경패를 희롱하는 의미에서 ‘봉구황’을 연주하자 정경패가 양소유가 남성임을 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회심곡」에서는 김진성이 이 곡을 연주한 후 농월에게 결연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후 김진성이 농월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자 농월은 노류장화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知己로 지내자고 제의한다. 이 대목은 「구운몽」에서 양창곡이 벽성선과 음악적 교감을 나눈 뒤에 육체적 관계를 맺으려 하자 벽성선이 거절하는 대목을 차용하였다.

일로조차 진성이 날마다 밤이면 월랑의 집에 가 소견할새 지괴 상합함이 비록 교칠 갖흐나 임석 운우를 희롱코저한 즉 월낭이 구지 사양왈 첩이 매양 여분의 지조를 사모하얏고 하간의 음풍을 뒤워 녀이오며 지괴와 허심함을 원하얏고 범부와 허심함을 즐겨 아니하얏더니 이제 상공은 첩의 지괴시라 감히 청루 천기의 음한한 풍정으로 사괴이릿고 지어 부부지연을바리지 아니신즉 후일이 무궁하오니 금일 상공은 다만 심괴를 의론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날 지성이 그 지조를 귀특히 녀이나 풍정이 너무 담연함을 의심하더라(「청년회심곡」)²¹⁾

이날부터 한림이 날마다 낭의 집의 가 소견할시 지괴의 상합흐미 비록 교칠 갖드느 일석 운우를 희롱흐즉 낭이 고스 불허흐니 한림이 의아흐여 왈 니 비록 불스흐느 낭과 친흔 지 일삭이라 구지 허신치 아니흐른 무산 곡절이노 선낭이 소왈 군근지교는 그 담흐미 물 갖고 소인지교는 그 달기 술 갖다 흐니 첩이 평성지괴와 허심흐를 원흐고 원흐고 범부와 허심흐른 즐겨 아니느니 금일 상공은

21) 「구운몽」, 권지일(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국문필사본).

22) 「청년회심곡」, 전집, 401-402면.

첩의 지괴라 감히 청누 천기의 음난흔 풍정으로 스킨리오 지어 부부지연을 만일
바리지 아니신즉 후일리 무궁하니 금일 봉장은 다만 심괴를 의논하야 봉우로 알
으소서 한림이 그 지조를 괴특이 너겨 강박지 아니흔 풍정의 너무 담연흔물
의심하더라(「옥루몽」)²³⁾

이상, 「청년회심곡」에서 기녀 농월은 「구운몽」에서 사족녀 정경패의 모습
과 「옥루몽」에서의 기녀 벽성선의 모습을 차용하여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농월의 모습은 음악적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사족녀 정경패와
같이 품위 있는 여성의 모습과 그리고 벽성선과 같이 지조 있는 여성의 모
습을 함께 구비하고 있다.

한편 「청년회심곡」은 「옥루몽」에서 기녀 강남홍이 양창곡에게 노래를 불
러 자신의 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청년회심곡」
과 「옥루몽」에서 기생이 남주인공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는 대목은 다음
과 같다.

관덕령 도라 들면 흥도화는 우물 우혜 뛰어 잇고 분장머리 소슨 루대 개성
풍월 분명하다 아마도 그 집주인은 이팔 청년 경패인가 하노라 하였더라 진성이
그 노래를 유의하여 듯고 좌중 이목이 번다함으로 다시 다른 말씀을 감히 하지
못하더니(「청년회심곡」)²⁴⁾

항쥬성 도라들 제 (더도 청누 몇 곳신고) 문압희 벽도화는 우물 우혜 뛰어 잇
고 담머리의 소슨 누각 강남 풍월 분명하다. 그곳의 아희 불너 나오거든 연옥인
가 호소 이 노리는 흥낭의 창졸간 소작이라. 그 초장은 자사와 모든 선비 공주
의 지조를 식기하야 풍파 일니란 말이오 중장은 공주다려 밧비 도망하란 말이오
삼장은 흥낭이 제 집을 가르치미라(「옥루몽」)²⁵⁾

「청년회심곡」의 노래 대목을 보면, 지명의 이름만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
이 「옥루몽」과 거의 일치한다. 물론 기생이 남주인공에게 집의 위치를 알려
주는 내용이 「구운몽」에서도 나오지만, 「구운몽」에서는 기생 계섬월이 양소

23) 「옥루몽」 권지삼.

24) 「청년회심곡」, 전집, 404면.

25) 규장각 소장본 「옥루몽」 권지일.

유에게 노래로 하지 않고 직접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⁶⁾ 「구운몽」과 「옥루몽」에서는 기녀가 남주인공에게 먼저 집을 알려주는 애정결연의 첫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년회심곡」에서는 악인형 기녀 경패가 김진성에게 집의 위치를 알려 준 뒤, 김진성의 돈을 갈취하는 기녀로 형상화된다.

(나) 「왕경룡전」 수용

기녀담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물 추구 기녀담과 또는 애정추구 기녀담이 따로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청년회심곡」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 자리에서 다루어진다. 주지하다시피 김진성을 둘러싸고 기녀 농월은 순수한 애정을 추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경패는 오로지 재물을 추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형상화 방법은 이미 17세기 경 「왕경룡전」에서 이루어졌다.²⁷⁾

「왕경룡전」²⁸⁾

- ① 절강 왕각노의 아들 왕경룡이 부친의 심부름으로 빚을 받으러 떠난다.
- ② 市街를 지나다가 청루에 들러 기녀 옥단춘을 소개받는다.
- ③ 옥단춘의 집에서 머물면서 전재산을 탕진한다.
- ④ 옥단춘은 기모의 의견에 반대하나 기모는 다른 기녀와 짜고 경룡을 떨쳐버린다.

26) 심이 나귀를 타노라 하니 섬월이 짜라나와 심드려 날오더 다리 남녀 허분칠흔 담 밧게 임도해 성이 편 집이 곳 첩의 집이라 낭군이 몬져 가 기다리라(「구운몽」 권지 일).

27) 박일용은 「이와전」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옥단춘낙란봉부」와 「왕경룡전」의 변안 양상 및 사회적 성격을 고찰하면서, 「왕경룡전」은 「청년회심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박일용, 앞의 책, 302-348면).

28) 17세기 초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왕경룡전」은 한문필사본으로 전하는데, 김집 수택본 전기집 수록본, 김동욱본, 국립도서관 소장 삼방요록 소재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신독재 김집의 생몰 연대(1574-1665)로 보아 17세기 초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정병욱, 「최문헌집에 대하여」,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 한편 「왕경룡전」은 「청루지열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하였다(「靑樓之烈女」, 신구서림, 1917(「구활자본고소설전집」 14,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에 영인되어 있음). / 「왕경룡전」은 金華山人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일보』에 「용함옥」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기도 하였다(대한일보, 1906.2.23-4.30(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86-92면 인용)). / 본고에서는 국립도서관 소장본 삼방요록본의 「왕경룡전」을 대본으로 하였다.

- ⑤ 왕경룡이 기모가 보낸 불량배에게 맞고 버려지나 걸인에게 구조되어 광대가 된다.
- ⑥ 전일 부친의 서리였던 지방 유지의 도움을 받는다.
- ⑦ 옥단춘에게 편지를 전하여 옥단춘과 상봉한다.
- ⑧ 옥단춘이 황금을 주면서 계책을 일러주고 기모를 관가에 고발한다.
- ⑨ 옥단춘을 납치한 불량배가 본처에게 독살 당하면서 옥단춘이 판아에 잡힌다.
- ⑩ 과거 급제 후 암행어사가 되어 옥단춘을 구출하여 결합한다.

「청년회심곡」

- ① 전임 나주 목사의 아들 김진성이 부친의 심부름으로 빗을 받으러 송도로 떠난다.
- ② 송도 명기 농월을 만나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장래를 약속한다.
- ③ 상인 이회철이 베풀어준 잔치에서 경패를 만나 전재산을 탕진한다.
- ④ 경패는 그 어미와 한통속이 되어 진성 몰래 달아난다.
- ⑤ 진성이 중병이 들어 죽을 고비에 이른다.
- ⑥ 기녀 농월의 도움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 ⑦ 농월이 송도 유수 이춘화의 수청 강요를 피하여 몸을 숨긴다.
- ⑧ 진성이 3등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주서 벼슬을 받고 송도 유수 이춘화를 탄핵한다.
- ⑨ 김진성이 도리어 귀양가게 된다.
- ⑩ 이춘화가 처벌당하자 진성이 복직되고 농월과 결합한다.

①②③④⑤⑩에서 보듯 「청년회심곡」은 「왕경룡전」을 일정하게 수영하고 있다.

이 단락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작품적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차이점은 ④에서 확인된다. 「왕경룡전」에서는 옥단춘이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妓母가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인다. 「청년회심곡」에서는 경패와 妓母가 한통속이 되어 실리를 추구하는 자로 그려져 있다. 또한 ⑤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왕경룡전」에서는 옥단춘이 몸담고 있는 청루 쪽에서 왕경룡을 쫓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청년회심곡」에서는 경패와 기모가 도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왕경룡전」의 경우 상업화된 청루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청년회심곡」의 경우는 직업적인 창가 운영의 이전 단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한편 「왕경룡전」과 「청년회심곡」의 공통점은 재물추구 욕망을 보이는 기녀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서술시각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경룡전」에서 재물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기모에 대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청년회심곡」에서는 김진성의 재산을 탈취한 경패·기모에 대해 어떠한 정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 즉 기모와 경패는 도주한 이후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기녀의 재물추구 욕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왕경룡전」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⑥⑦⑧⑨ 등은 이들 작품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남주인공이 재물을 탐내는 기녀에 의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지만 「왕경룡전」은 옥단춘이 회심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옥단춘이 재물을 노리던 기모를 징치하게 하는 인물로 구현된다. 「청년회심곡」에서는 농월은 처음부터 성격이 변하지 않는 자로 그려져 있다.

2.3. 유배가사 「만언사」 수용

김진성이 추라도에서 유배생활하는 동안 지은 가사가 「청년회심곡」이다. 이 가사의 이름을 소설의 제명을 삼은 것이 「청년회심곡」이다. 그런데 가사 “청년회심곡”은 유배가사 「萬言詞」를 수용한 것이다.²⁹⁾ 「만언사」는 정조조 대전별감 안조원이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유배가는 과정과 유배지에서 받는 박대와 생활 궁핍상과 서술자의 비탄으로 채워져 있으며 총 745행 분량으로 되어 있다.³⁰⁾ 소설에서는 725행의 「만언사」를 424행으로 줄여서 수용하고 있는데, 그 수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후회감과 탄식 토로 (「만언사」 1-16행 - “청년회심곡” 1-13행)

② 부모 사랑, 면학, 혼인 회고 (「만언사」 17-57행 - “청년회심곡” 14-42행)

29) 김기동 교수가 이미 지적하였으나 소개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 세세한 차이점은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김기동, 앞의 논문 참조).

30) 「만언사」는 최강현, 『기행가사자료선집』 1(국학자료원, 1996, 158-157면)에 실린 것으로 함.

- ③ 주사 청루의 향락적인 생활(「만언사」, 58-75행-“청년회심곡” 43-59행)
- ④ 포부 있던 관직 생활(「만언사」, 76-99행-“청년회심곡” 간략함)
- ⑤ 득죄와 그에 대한 후회(「만언사」, 100-115행-“청년회심곡” 60-72행)
- ⑥ 추자도로의 유배 과정(「만언사」, 116-199행-“청년회심곡” 73-149행)
- ⑦ 어려운 유배 생활(「만언사」, 200-739행-“청년회심곡” 150-418행)
- ⑧ 해배 염원(「만언사」, 739-745행-“청년회심곡” 419-424행)

김진성이 지은 것으로 설정된 가사 “청년회심곡”은 「만언사」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분량을 줄였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가사 “청년회심곡”에 「만언사」의 내용이 수용되면서 고유 명사나 사건 등이 소설의 작품세계와 부합하도록 주도면밀하게 고쳐져 있다. 「만언사」에서는 작중 화자가 십년 동안 외가의 양육 은공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9세에 백부와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소설의 내용에 맞게 “청년회심곡”에서는 생략되어 있다.³¹⁾ 또한 「만언사」에서는 ‘삼청운대 광통교도 노리치가 아니런가’라고³²⁾ 하여 서울 지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청년회심곡”에서는 ‘만월대와 관덕정도 노리치가 아니런가’라고 하여³³⁾ 김진성이 기녀들과 애정을 맺었던 송도의 명승지 지명으로 바뀌어 있다.³⁴⁾

이러한 변개 말고도 소설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좌우하는 변개 대목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만언사」에서는 작중 화자의 유배 원인이 ‘③ 주사청루의 향락적인 생활’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다. 작중 화자는 “有識之人이 아니 되어 末技之業을 일삼더니 어와 바랐으랴 꿈결에나 바랐으랴”라고 하여 자신이 주사청루에 폭 빠져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금의를 몸에 감게”된 것, 즉 관직 생활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만언사」에서 ④의 ‘포부 있던 관직 생활’ 부분이 76-99행에 걸쳐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며 그러한 관직생활을 하는 중에 ‘호사다마’라고 하면서 자신이 임금에게 죄를

31) 십년 양육 외가 은공 호의호식 그러스라(「만언사」, 앞의 책, 160면).

유인유덕 우리 백부 구세 동거 효측하여 일가지내 혼 더 잇서 감고우락 갖치흔니 의식분별 다투던가 세간 구차 니 몰라라(「만언사」, 앞의 책, 161면).

32) 「만언사」, 63행(최강현, 『기행가사자료선집』1, 최강현, 국학자료원, 1996, 161면).

33) 소설 속의 가사 「청년회심곡」, 50행(「청년회심곡」, 전집, 418면).

34) 서울의 지명이 송도 명승지 부분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박정숙이 이미 지적하였다(박정숙, 앞의 논문, 46면). 그러나 다른 부분은 모두 필자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짓게 되었음을 밝힌다. 즉 「만언사」에서는 유배 원인이 향락생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직생활 중에 있었던 어떤 다른 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년회심곡”을 보면 김진성의 유배가 방탕한 청루 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되어 있다. 가사 “청년회심곡”에는 「만언사」에서의 ‘④ 포부 있던 관직 생활’ 대목이 생략되어 있고 ‘③ 주사 청루의 향락적인 생활’에서 곧장 ‘⑤ 득죄와 그에 대한 후회’로 넘어간다.

익재삼우 손재삼우 내 다희 알았것만
친구의 뉘임빠져 그른길로 드는고나
천금준마 환소첩은 소년노리 더욱조타
자금백상 변화경을 나도 잠깐하오리다
이전 마암 전혀 잊고 호심광홍 절로나니
백마황혼 미친 마암 유희경박 닷다른다
무릉장대 던진교도 명승디라 하엿스나
만월대와 광덕당도 노리처가 아니런가
하조월석 뵈날 업시 주사청루 노닐적에
만준향료 익취하고 절대가인 침혹하여
취대라군 고훈 태도 청가묘무 희롱할제
풍류호사 그런 즐김 주중선군 부러하라
.....

나 지은 죄 해야리니 여산약해 하리로다
앗갑도다 내 몸이여 애닦도다 내 일이여
.....

국법이 지중함에 죽기만 바랐더니
일명을 꾸이암서 해도에 내치시니
이도 성은 아니시나 가지록 망극하다
강두에 배를 매고 친척 고구 리별할제³⁵⁾

김진성은 유배에 처하게 된 것이 친구의 꾀에 빠져 酒肆靑樓의 주색에 빠져들어 수신제가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청년회심곡”에서는 “익재삼우 손재삼우 내 다희 알았것만/친구의 뉘임빠져 그른 길로 드는고나”고 하여 「만언사」에도 없는 구절을

35) 「청년회심곡」, 전집, 418-419면.

넣음으로써 향락적 생활이 유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진성은 주사청루에 빠진 자신을 ‘등잔불 치는 나비’로 비유하고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마른 쇠를 등에 지고 열화 중에 들게 된’ 것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국법에 걸려 죽을 죄를 졌는데도 죽지 않고 유배당한 것이 오히려 성은이라고 말한다.

이제 소설 전후 문맥에 비추어보아 김진성이 반성한 주사청루에서의 행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데가 관심의 대상이다. 일차적으로 진성은 돈 15만냥을 빼앗아 달아난 기녀 경패에게 자신이 속은 일에 대해 반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진성이 경패와의 향락적인 애정 행각만을 반성하였다는 것은 작품의 전후 문맥상 인과적 필연성이 희박해진다.³⁶⁾

그러나 김진성이 반성한 주사청루 생활은 기녀 경패와의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기녀를 사이에 두고 왕실의 종친이나 대소 관리들 간에 서로 다투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다른 이의 기첩과 몰래 사통하거나 기첩을 빼앗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투를 잘리는가 하면 옷을 찢기고 또한 심하면 매를 맞아 죽음에 이르기조차 하였다. 또한 대소 관리가 봉변을 당할 때 신분 계층이 낮은 자들에 의하여 봉변을 당하기도 하였다.³⁷⁾ 또한 성종 19년에 善山과 星州의 백성이 기생잡고 문제로 인하여 목사나 수령을 경멸하여 포악한 말로 꾸짖는 일이 조정에도 보고되기도 하였다.³⁸⁾ 또한

36) 박일용 교수는, “김진성의 유배는 전적으로 탐학한 간신의 무리 이춘화 일당의 모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가사 내용을 보면 …… 창가에서 돈을 허비하여 그로 인하여 유배를 당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는 소설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하였다(박일용, 앞의 책, 327면).

37) 세종 12년에 광주 목사 신보안이 고을 기녀 소매와 간통하였다가 그의 서방인 호군 노홍준이 소매를 결박하고 신보안을 매로 쳐서 그에 따라 신보안이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감사 한해, 도사 오치선, 감찰 이안상 등이 파면당하고, 노홍준의 처자를 본읍에서 내쫓고 그 집을 헐고 그 밭을 몰수하고, 또한 광주목(光州牧)이 강동되어 무진군(茂珍郡)으로 고치는 것으로 결말났으며(「세종실록」 권47, 12년 3월 병인), 그 후로 성종 때에 이르러서도 수령 구타 사건이나 아비 살해 사건 등이 벌어질 때마다 상하 구분을 깨뜨리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38) 성주에서는 해당 관리가 기녀의 이름을 점고할 때에 한 백성이 자기가 간통한 기녀는 점고하지 말라고 청하였다가 관리가 응하지 않자 그 백성이 성을 내어 그 관리를 구타하기조차 하였고, 이에 따라 목사가 그 백성을 잡아오게 하였는데 그 백성은

사랑하던 기녀를 빼앗기긴 것에 대한 분노로 모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다른 사적인 원한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폭로할 때에 상대방의 기녀 관련 위법 사실을 폭로하거나 또는 기녀 관련 위법 상황을 과장되게 꾸며 무고하는 일도 벌어졌다.³⁹⁾

「청년회심곡」에서 김진성이 주사 벼슬을 하면서 농월에게 수청을 강요한 송도 유수 이춘화를 탄핵하였다가 오히려 이춘화에게 당한 것은 이러한 조선시대의 기녀 다툼 기녀풍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녀의 수청을 받는 것과 기녀를 대동하여 지나친 宴飲을 베푸는 것, 기녀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은 법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사회 풍속상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졌을지라도 해당 관리의 탄핵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는 이상의 문제가 위법행위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벌미가 되었다.⁴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자. 김진성은 이춘화가 기녀 농월에게 수청을 강요한 것을 들어 탄핵하였다. 그러나 김진성 역시 기녀와의 연음이나 간통을 저지름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한 처지에 있었다. 김진성이 농월에게 수청을 강요한 행위를 들어 이춘화를 조정에 탄핵하였을 때 상관인 이춘화 역시

거부하며 포악한 말을 하기조차 하였다(「성종실록」 권211, 19년 1월 계해).

39) 송개석의 대호군 송거신 모함 사건(「태종실록」 권6, 3년 11월 신축) / 전라도 절제사 이각과 나주 목사 이육 그리고 그 휘하들 사이의 기녀 관계 모함 사건(「세종실록」 권47, 12년 3월 병인) / 지평 진유경의 충청도 관찰사 이충 모함 사건(「세조실록」 권12, 4년 3월 을사 정미, 4월 을해) / 수령 김극괴는 수령으로서 다른 고을의 기녀를 불러들여 숨겨두고 통간하였다가 마침내 일이 발각되자 오히려 본주의 판관 우윤공이 통간하였다고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성종실록」 권 217, 19년 6월 갑오) / 기녀 동반 토색질하던 전라도 관찰사 한두가 자신의 행위를 진언한 오수 찰방 이원경을 뒤집어 씌운 사건(「명종실록」 권10 5년 6월 무술) / 김유가 종사관으로 충주에 왕래할 적에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셨다고 하여 논죄되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김유가 무죄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선조실록」 권97, 31년 2월 계유, 권101, 31년 6월 무오, 권128, 33년 8월 갑신, 권133, 34년 1월 신유). / 환관 윤키한은 奉使가 되어 倡妓 운향을 가까이하고 궁중에 출입하게 한 죄로 걸려들었는데, 안주 판관과 서로 말다툼한 일이 있어서 그에게 무함당하였다고 변명한 사건(「숙종실록」 권13, 8년 4월 경자).

40) 기녀제도와 기녀풍속에 대해서 본고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지면상의 이유를 들어 생략하기로 한다. 차후에 다른 지면을 통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겠다.

김진성의 기녀 전력을 알고 있었던 지라 그의 죄상을 밝혔던 것이고 또한 배후세력과 손잡고 김진성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항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김진성이 귀양가게 된 것이다.⁴¹⁾

가사 “청년회심곡”에 실려 있는바, 적객으로 들어온 자신을 서로 떠맡으려 하지 않는 추자도 백성들의 태도, 혹독한 배고픔과 추위, 누추한 의복, 동네를 떠돌며 빌어먹는 자신을 가리켜 ‘귀양다리’라고 손가락질하는 동네 인심, 양지쪽에 앉아 이를 잡는 모습 등 양반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비참한 고생을 겪으면서, 비로소 진성은 기녀 농월과의 애정행각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만언사」에서는 빠져린 유배 생활을 통하여 관직 생활에서 언행을 조심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 귀양오게 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같은 내용일지라도 소설 「청년회심곡」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통하여 기녀 경패는 물론이고 농월과의 애정행각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 문맥이 변한다. 소설 「청년회심곡」은 제명과 작품세계가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의 성과와 한계

이상의 「청년회심곡」 창작방법은 당대 고전소설에 익숙한 향유층인 일반 대중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상업성을 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소설 읽기에 익숙한 독자에게 새로운 소재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단지 소재의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인물의 성격화 과정에 있어서 성과 및 한계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좀더 논의하기로 한다.

41) 이러한 정황이 작품에서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는 당대 기녀풍속상 상식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작품읽기를 위해 지적해두고자 한다.

3.1. 작품 수용에서의 「청년회심곡」 창작방법의 성과와 한계

「청년회심곡」 창작방법의 성과를 작품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미 앞 항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그 한계를 제시하기로 한다.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은 「부용상사곡」에서 거의 비슷하게 되풀이된다. 「부용상사곡」의 작가 역시 기녀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구운몽」·「옥루몽」을 교차 수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가사 「상사별곡」과 실존 기녀 부용의 「층시」를 수용하고 있다.⁴²⁾ 「부용상사곡」(1913)에 이어서 「청년회심곡」(1914)가 같은 출판사 신구서림에서 간행되고 특히 「구운몽」·「옥루몽」의 교차수용 양상이 두 작품에서 거의 같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가가 동일인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거의 같은 내용이 「청년회심곡」과 「부용상사곡」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한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작품을 수용하였을 때의 미숙함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청년회심곡」은 「만연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소설의 작품 상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만연사」의 작중 화자 나이가 34세로 되어 있는데 소설 속의 가사 “청년회심곡”에서 그대로 수용하였다.

어와 너일이야 광음을 헤여보니 반성이 치못되어 육륙에 들어없네
(「만연사」)⁴³⁾

하물며 내일이야 광음을 헤여보니 반생이 다못되어 육륙에 들어없네
(「청년회심곡」)⁴⁴⁾

육륙에 들어 없으니 서른 네 살이다. 그런데 「청년회심곡」의 서사세계에서 김진성은 송도에 심부름 갈 때 나이가 “이제 진성의 나히 이구이니”⁴⁵⁾

42) 조광국, 「부용상사곡 연구-구성적 특징과 갈등구조 및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3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8.

43) 「만연사」, 앞의 책, 159면.

44) 「청년회심곡」, 전집, 416면.

라 하여 18세의 나이로 되어 있다. 전후 문맥이 맞지 않는다.

또한 「만연사」의 작중 화자는 혼인하여 처를 거느린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소설 속의 가사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동방화촉느저간다 약관전에유실하니 …… 니조에 어진치는 성가홀 증조로다
(「만연사」)⁴⁶⁾

동방화촉느저간다 약관전에유실하니 …… 내조의 어진치는 공가할 징조로다
(「청년회심곡」)⁴⁷⁾

그러나 서사세계에서 김진성은 나이가 18세의 미혼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농월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하나 작자가 「만연사」를 수용하면서 이것을 고쳐 놓지는 못했다. 작품 내용 중의 불일치는 방각본이나 필사본 고전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이지만, 1910년대에 신작 구소설 「청년회심곡」의 경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3.2. 意識을 중심으로 본 「청년회심곡」 창작방법의 성과와 한계

먼저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이 거두고 있는 성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왕경룡전」에서 실리추구의식을 지닌 기모는 악인형 인물로 그려져 있고 옥단춘은 처음에는 기모의 실리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기녀로 그려지다가 나중에 애정희구·신분상승의식을 실현하는 자로 그려진다. 옥단춘은 지나치게 재물을 추구한 나머지 남주인공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를 거지로 전락하게 한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친 후에 비로소 실리추구의식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애정희구·신분상승의식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청년회심곡」에서는 처음부터 실리추구의식을 지닌 기녀 경패와 기모 일당과 애정희구·신분상승의식을 지닌 기녀 농월로 구별되는 모습을

45) 「청년회심곡」, 전집, 389면.

46) 「만연사」, 앞의 책, 161면.

47) 「청년회심곡」, 전집, 417- 418면.

보여준다. 「왕경룡전」에서 옥단춘의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의식 지향의 모습은 「청년회심곡」에서 각각 악인형 기녀 경패의 의식과 선인형 기녀 농월의 의식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청년회심곡」은 「왕경룡전」에 비하여 인물의 성격 분화에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청년회심곡」의 작자는 기녀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구운몽」·「옥루몽」에 대해 정통하고 있거나 또는 이 두 작품을 놓고 배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사 「만언사」를 수용하여 적절하게 가사 “청년회심곡”으로 변개해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년회심곡」은 기녀의 애정회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을 긍정적으로 그려내는 성과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춘향, 옥단춘, 월하선, 경패(이진사전) 등의 기녀가 지녔던 애정회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을 계승하는 것이다.

「청년회심곡」의 이러한 창작방법은 여타의 신작 구소설의 창작방법과 비교된다. 이해조는 백화체 한문소설 「잠상태」(1906-1907)를 발표했는데 그 구조는 작자 미상의 「영영전」과 그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또한 여주인공 이름이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조는 「운영전」까지 섭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주인공 운영을 대가집 계집종의 신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과 작품의 서두에 「광한루의 기이한 인연(廣寒之奇緣)」에서 운영이 춘향처럼 신분상승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 등에서 「잠상태」는 「춘향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⁴⁸⁾ 한편 1918년에 초판 간행된 「한씨보용록」과 「홍장군전」은 역사영웅소설의 구조를 수용하면서 실존인물 한명회와 홍윤성에 관계하는 많은 문헌설화를 적절하게 배치한 작품이다. 그 과정에서 세조의 왕위찬탈에 얽혀 있던 부정적인 시각을 벗겨지고 개인적인 영달과 가문회복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역사영웅을 창출하고 있다.⁴⁹⁾

한편 「청년회심곡」 창작방법은 意識 구현의 한계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진성의 意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진성은 처음에 농월과 순수한 사랑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48) 최원식, 「이해조의 문학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26-29면 참조.

49) 조광국, 「역사영웅소설연구-구활자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88집,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연구회, 1988, 132-133면 참조.

그의 애정회구의식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지녔던 풍류의식을 온전히 벗어난 순수한 애정회구의식은 아니었다. 진성은 농월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 대신 기녀 경패와 탐닉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차설 진성이 월낭의 청고한 지조를 흠복하나 그 풍정의 담연함을 혐의하다가 및 경낭을 만남에 그 아리따운 교태와 형용치 못할 감언이설에 침혹하여 일절 월낭을 찾지 아니하고 낮이면 객관에 있어 해지기를 기다리고 밤이면 경낭의 집에 나아가 즐기니 양정의 환혼함이 비컨대 원앙이 녹수에 노닐며 비익조가 연리지에 깃들임 같더라⁵⁰⁾

비록 김진성이 농월을 사랑하였지만 농월이 지나치게 기녀답지 않게 몸을 사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자 진성으로서는 재색이 뛰어난 다른 기녀 경패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성욕을 성취하는 모습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병이 든 자신을 구해준 농월의 모습을 보고 진실로 애정회구의식을 지향하게 된다. 농월에게 수정을 강요하였던 송도 유수 이춘화를 탄핵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춘화가 ‘貪財好色’하는 관료로서 풍류의식·향락의식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고 진성은 순수한 애정을 추구하는 의식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면서, 이춘화는 비판되어야 할 봉건 사회의 부패 관리로 설정되고 진성은 신분 차이를 넘어서서 사랑을 성취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설정된다.

그러나 김진성의 이러한 순수 애정을 지향하는 의식은 약화되고 만다. 유배생활 도중 농월과의 애정행각까지 포함하여 주사청루 생활을 반성하였다는 사실은, 진성이 지향하였던 애정회구의식이 풍류·향락의식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음을 말해준다. 농월과의 사랑은 풍류의 하나였으며 그것은 반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애정이 순수한 것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애정결연의 묶이 농월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김진성은 해배·복직 과정에서 유배지에서 도움을 주었던 자들에게 보은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농월을 그

50) 「청년회심곡」, 전집, 407-408면.

리위하는 정도였으나, 농월이 김진성을 찾아감으로써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다. 그 동안 농월은 이미 김진성이 떠난 뒤 '지분을 폐하며 문을 닫고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다' 송도 유수 이춘화의 수청 강요를 피하여 감악산 운수암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농월이 지방관 이춘화의 수청 강요를 거절하고 스스로의 애정회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을 실현한 것은 「춘향전」의 춘향이나 「옥단춘전」의 옥단춘, 「월하선전」의 월하선, 「이진사전」의 경패 등을 모습을 잇고 있다.

그러나 양반의 풍류의식·향락의식에 대항하는 농월의 모습은 적대자 이춘화에게만 저항하는 것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김진성은 농월에 의해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김진성은 작품이 끝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농월을 애정의 대상으로 보았다가 풍류의 대상으로 보았다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농월은 김진성의 의식의 변화를 피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춘향과 월하선은 양반 자제(이도령과 황직경)가 풍류의식·향락의식을 벗어던지도록 하였는데, 농월은 그러지 못했으며 또한 옥단춘과 경패(이진사전)는 양반의 풍류의식·향락의식이 소거된 몰락양반(이혈룡과 이진사)을 선택하여 자신의 애정회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에 동조하도록 하였는데 농월은 그렇지 못했다. 「청년회심곡」은 기녀 중심으로 서술되고 기녀의식이 부각되는 기녀등장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나, 서사세계에서 사랑하는 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 오히려 김진성의 회심이 후반부에 끼어들면서 기녀 농월의 애정회구·신분상승의식은 회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년회심곡」은 「춘향전」, 「월하선전」, 「옥단춘전」, 「이진사전」 등에 의해 성취된 근대지향성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 대신 통속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청년회심곡」의 시대적 한계를 든다면, 경패의 실리의식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서술시각이 여전히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패는 본대 평양 사람이니 그 어미 이파로 더불어 송도에 와 살며 자못 자색이 있고 겸하여 가무가 절등하니 사람마다 사랑하나 다만 그 심지 아름답지 못하고 그 어미는 또한 세상을 열력한 건파라 그 딸을 부축하여 남의 재물을 앗기로 일삼더니⁵¹⁾

경패는 표리부동한 성격의 인물로서 오직 상대 남성의 재물에만 관심을 두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는 겉으로는 농월과 같이 재물을 탐하지 않고 애정과 지조 그리고 신의를 중히 여기고 기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패의 이런 행동은 모두 진성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자신의 재물 추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하였다. 진성에게 접근할 때에도 경패는 이미 진성이 이희철에게 받은 거금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였으며, 진성을 위하여 수절할 것처럼 꾸며대며 진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경패는 어미와 짜고 편지를 위조하여 아버지가 살인죄로 중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15만 냥이 있으면 풀려난다고 꾸며 십오만 냥을 갈취하여 도주해버린다.

이처럼 경패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시각은 조선시대 기녀담에서 형성되었던 서술시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물론 경패가 도망한 이후 어떤 처벌을 받거나 응징 당하였다는 작품적인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을 추구하는 기녀들의 실리추구의식에 덧씌워진 부정적 서술 시각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미 1910년대에 이르렀으면서도 경패의 실리 추구의 욕망이 조선시대 기녀의 신분적 제도적 질곡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전혀 문제삼지 않은 것은 「청년회심곡」의 작품적 한계라 아니할 수 없다. 여전히 실리를 추구하는 기녀 경패를 악인형으로 그려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절하는 농월과 대비하는 등 조선후기에 이루어졌던 작품형상화 방법 및 서술시각을 되풀이하여 독자층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청년회심곡」의 소설사적 위상을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에 대한 연구로 그 발판을 삼았다.

먼저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은 기녀의 수절·애정 기녀담을 수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조문명이야기」, 「가련이야기」, 「유명수이야기」, 「단천

51) 「청년회심곡」, 전집, 403면.

비·함흥기이야기」 그리고 「매화이야기」의 토대 위에서 기녀 농월의 성격이 형상화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재물추구 관련 기녀담, 예컨대 「모란이야기」, 「한생이야기」, 「두선비이야기」, 「민애이야기」, 그리고 「염생이야기」·「허생이야기」·「돌이야기」·「생금이야기」·「울공금이야기」 등을 수용함으로써 기녀 경패가 악인형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으로 「구운몽」·「옥루몽」을 교차 수용함으로써 기녀 농월의 뛰어난 음악적 식견을 드높였으며 한편으로 기녀 경패의 미혹적인 모습을 그려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왕경룡전」에서 이미 확립된 악인형 기녀(재물추구형 기녀)와 선인형 기녀(수절·애정추구형 기녀)가 한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구성 방법을 수용하였음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으로 유배가사 「만언사」가 수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만언사」의 내용이 축약되면서 작품 과정에 맺게 가사 “청년회심곡”으로 변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년회심곡」의 남주인공 김진성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던바, 김진성은 기녀 경패에게 미혹되었던 것 뿐 아니라 기녀 농월을 사랑한 것조차도 후회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청년회심곡」은 작품 내용이 표리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창작방법은 통하여 「청년회심곡」이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왕경룡전」에 비해 실리추구의식을 지닌 기녀와 애정희구·신분상승의식을 지닌 기녀의 성격 분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녀 농월의 애정희구의식과 신분상승의식은 춘향, 옥단춘, 월하선, 경패(이진사전) 등을 통해 구현되었던 기녀의식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청년회심곡」은 창작방법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먼저 부분적이기는 하나 「만언사」의 내용을 수용함에 있어서 김진성의 나이와 혼인 상태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구운몽」·「옥루몽」을 교차 수용함에 있어서 이미 「부용상사곡」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그대로 빼껴 놓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의 한계는 기녀 自意識 구현에 있어서의 한계였다. 농월은 애정희구·신분상승의식을 지닌 기녀였으나 情人 김진성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청년회심곡」의 한계였다. 김진성은 풍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애정을 지향하는 의식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

다가 농월과의 애정을 다시 풍류의 하나로 보고 그것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춘향, 월하선, 옥단춘, 경패(이진사전)에서 이루어진 기녀의식이 통속화된 것이라 보았다.

이상, 「청년회심곡」의 창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년회심곡」의 창작 방법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출현하였던 신작 구활자본 소설의 창작방법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본고에서는 「잠상태」, 「한씨보응록」, 「홍장군전」 등 몇 작품을 언급하는 데서 그쳤지만, 이러한 논의를 확대하여 1910년대의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창작방법상의 변이 양상을 추적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후고를 기대해 본다.